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4주~10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ㅇ [인프라] 인정부, '27년 거대 방조제 사업 착수 계획[1](Bisnis, 9/20)

- 프라보워 대통령은 '27년부터 자바 북부 해안 거대 방조제(Giant Sea Wall) 사업 착수 계획,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지역 피해 감축 및 국가 경제활동 중심지인 자바 북부의 보호 필요성 강조. 방조제는 약 575km(반텐주 Tangerang-동부자바) 15개 구간으로 조성, 연안 지역민 약 5,000만 명 보호 목표

- 특히 Pantura 지역은 산업단지 70곳, 특별경제구역(KEK) 5곳이 위치한 국가 중심 물류망이며 인도네시아 GDP의 최대 38% 창출.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산업 및 물류 기반 보호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 예정

- 북부자바해안관리청(BOPPJ) 청장 Didit Herdiawan Ashaf는 방조제 건설과 더불어 향후 일부 지역의 해일·만조 침수 대응을 위해 맹그로브 숲 확대·관리 예정. 또한 산업 및 주거 활동으로 훼손된 연안 생태계 복원 병행 계획

ㅇ [플랜트] Danantara, Bogor Raya 1 WTE 시설 착공[2](Danantara Indonesia, 9/17)

- 국부펀드 Danantara는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IM) 및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Denera)를 통해 Bogor주 Galuga에 Bogor Raya 1 WTE 시설 건설 착수. 일일 1,500톤의 폐기물 처리 및 연간 50만 톤 이상 처리와 더불어 매립지 배출량 최대 80% 감축 목표

---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20/45/2005627/prabowo-beri-sinyal-mulai-proyek-giant-sea-wall-pada-2027
2) https://www.danantaraindonesia.co.id/zh/media-center/press-releases/psel-bogor-raya-1-construction

- 또한 Danantara는 PLN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 구매가격은 kWh당 0.2불로 설정하였으며 '28년 중반 가동 예정. 동 시설은 사업회사(BUPP)인 Nusantara Bogor New Energy가 개발·운영, 일자리 최대 1,200개 창출과 Bogor Raya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기여 전망

- Danantara는 향후 Bogor Raya 2를 추가, 전국 33개 지역의 17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Bogor Raya 1은 WTE 기술 연구 거점으로 활용 예정

ㅇ [도시개발] 일스미토모, Sawangan 지역 250ha 규모 주거개발 사업 추진[3](Bisnis, 9/21)

- 남부 Depok Swangan 지역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계 부동산 개발사 Sumitomo Forestry Indonesia는 약 250ha 규모 Gardens at Candi Sawangan 주거개발 사업 추진. 동 사업 중 하나인 Morizono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PT Graha Perdana Indah(GPI)와 공동 추진,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13세대 신규 공급 진행 중

- Gardens at Candi Sawangan 주거개발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상업시설, 개방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 또한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JORR 2)와 Depok-Antasari 유료도로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 교통망 확충에 따라 주거개발 여건도 개선될 전망

ㅇ [인프라] MRT Jakarta, 환승연계개발 사업 7건 추진[4](Bisnis, 9/15)

- PT MRT Jakarta는 Jakarta 내 환승연계개발(TOD) 지역 6곳에서 개발사업 7건 추진. 주요 사업은 Kali Besar Heritage, XGL 복합개발, Blok M 종합개발, Lebak Bulus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Thamrin 자산개발, Bundaran HI 역사 확장공간, Dukuh Atas 보행자 전용도로 등

- MRT Jakarta 사업개발본부장 Farchad Mahfud는 동 사업이 부동산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21/47/2005706/sumitomo-perkuat-ekspansi-properti-250-ha-di-sawangan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15/45/2004401/mrt-siapkan-7-proyek-tod-di-jakarta-ini-sebaran-lokasinya

개발 및 도시공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 이미 '19~'26년까지 Kendal 터널 보행자 전용화, Sudirman·MH Thamrin 도로변 보도 정비, Jabodebek 경전철 Dukuh Atas BSI역과 KCI Sudirman역 및 Dukuh Atas 환승 거점을 연결하는 복합 보행교 등을 포함, 기반시설 사업 14건을 조성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인도네시아-일본 교통 및 인프라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정책·제도 기반을 통한 정부 지원과 인프라 사업 재원조달에 대한 투자자 관점 등을 논의. MRT Jakarta는 교통시설과 주변 도시공간을 연계하는 TOD 개발을 통해 자카르타 내 도시 연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목표

ㅇ [인프라] MRT Jakarta, 싱가포르 투자자에 환승연계개발 사업 제안[5](Kompas, 9/23)

- PT MRT Jakarta는 9.24일 주싱가포르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환승연계개발(TOD) 투자포럼을 개최, 싱가포르 투자자에 5건의 사업 제안. 동 포럼은 주싱가포르 인도네시아대사관, Surbana Jurong Group,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IIPC) 싱가포르 사무소 등이 공동 개최, 자카르타 주 지방공기업도 협력

- 제안 사업은 Kali Besar Heritage, Blok M 환승시설 등 종합개발, XGL 복합개발, Lebak Bulus 환승터미널·주차장, 복합개발 등으로 구성, 투자자, 개발사,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및 관련 기관 참석. MRT Jakarta와 자카르타 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TOD 사업의 투자 및 협력방안 논의

- 동 포럼은 '22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의 일환으로 동남아 투자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수의 자카르타 주 교통 및 개발 공기업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

ㅇ [인프라] Cikarang-Balaraja MRT 노선, '31년 운행 목표[6](Cna, 9/24)

- Cikarang-Balaraja MRT는 반텐, 자카르타, 서부 자바를 연결하는 총

5) https://www.kompas.com/properti/read/2026/09/23/180000521/mrt-jakarta-tawarkan-5-proyek-tod-kepada-investor-singapura
6) https://www.cna.id/indonesia/mrt-cikarang-balaraja-48-stasiun-2031-51161

연장 약 84km 노선으로 48개 역과 3개 차량기지를 조성, '31년 운행 목표. 반텐주 Balaraja와 서부자바 Cikarang, 자카르타를 연결해 대중교통망 확대 계획

- 1단계 사업은 Tomang~Medan Satria 24.5km 구간과 Rorotan 차량기지 연결구간 5.9km로 구성, 지하 및 고가 방식으로 건설. 지하구간은 Roxy~Galur, 고가구간은 Tomang~Grogol 및 Cempaka Baru~Ujung Menteng 구간으로 조성, '26년 착공 예정

- 자카르타 중앙정부는 Thamrin~Kwitang 등 예정 사업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등 건설 준비에 착수, 자카르타 주정부와 사업비 분담방안을 협의 중. 자카르타 및 주변 지역의 대중교통 연결성 강화 목적이며, 전체 노선은 일일 약 28,400명 수송 목표

ㅇ **[인프라] 프라보워 대통령, LRT Kelapa Gading-Manggarai 구간 개통**[7] (Bisnis, 9/16)

-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의 대중교통 연결성 및 통합체계 강화를 위해 LRT 1B단계 Kelapa Gading-Manggarai 구간 운행 개통. 총연장 12.2km, 11개 역으로 Kelapa Gading과 Manggarai를 연결해 자카르타의 철도교통망 확대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동 노선의 운행은 기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 통합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카르타 내 이동 시 교통수단 선택폭이 확대될 전망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ㅇ **PT KAI·INKA, '27.1월 통합 출범 목표**[8] (Bisnis, 9/24)

- 국영 철도운영사 PT KAI는 국영 철도차량 제작사 PT INKA와의 통합을 '27.1.1일 시행하는 방안 검토. '26.9월 조건부 출자 방식의

7) https://foto.bisnis.com/view/20260916/2004819/presiden-resmikan-lrt-kelapa-gading-manggarai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24/98/2006750/kai-target-merger-dengan-inka-efektif-1-januari-2027

INKA 지분 이전 절차에 착수, 현재 INKA 전반에 대한 실사 진행 중

- 통합 이후 INKA는 철도차량 제작뿐 아니라 KAI의 차량 정비시설인 Balai Yasa를 포함한 유지보수와 기술개발 업무까지 담당 범위 확대 목표. KAI는 '29년까지 INKA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철도차량 및 유지보수 분야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예정

- KAI는 통합계획 마련을 위해 러시아, 일본 등 해외 철도운영사와 철도차량 제작사 간 통합 사례를 비교·검토. 이를 통해 차량 제작과 유지보수를 연계한 통합체계 구축 방안 마련 계획

ㅇ 인니, 유료도로 개발기금 관리센터 설립[9](Bisnis, 9/23)

- 인니 공공사업부(PU)는 유료도로 분야 국세외수입(PNBP)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료도로 개발기금 관리센터를 신설. PU 산하 도로총국의 기관으로 운영되며,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재정관리 방식에 따라 유료도로 운영권 및 국가 유료도로망 개발 관련 재원 관리 계획

- 공공사업부 장관 Dody Hanggodo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운영권이 필요한 유료도로 사업 특성상 재원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 설립 근거는 유료도로에 관한 정부규정 제23호(2024), 제93조 및 공공사업부 장관령 제17호(2026)에 명시

- 신설 기관은 유료도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PNBP 관리, 수입원 분석 및 개발 재원 배분체계 마련 등을 담당, 신규 유료도로망 확충을 위한 재원 운용체계 정비 역할 수행 예정

ㅇ 인니, 연구개발 기반 에너지 안보 강화 추진[10](Rri, 9/24)

-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 확대,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강조.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 Brian Yuliarto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에너지 수입에 연간 약 400억불(Rp715tril)이 소요돼 수입 의존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

---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23/45/2006416/pemerintah-bentuk-badan-pengelolaan-pendanaan-jalan-tol-cek-detailnya
10) https://rri.co.id/en/education/2752855/indonesia-seeks-research-based-solutions-to-enhance-energy-security

- 주요 방안으로 전기차 전환, 태양광 발전소 등 대체에너지 전환을 제시,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대학 연구 지원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예정. BRIN 청장 Arif Satria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정부, 지역사회 연결 기반 마련 필요성 강조

- 정부는 에너지 주간 행사를 계기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 실용기술과 사업화 가능한 제품 개발 지원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목표

ㅇ **IAEA, 인니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전면 지원**[11](Brin, 9/16)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인니 국가연구혁신청(BRIN)은 안전, 평화적 원자력 활용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재확인. IAEA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NUTEC Plastics), 식량안보·농업 지원(Atoms4Food), 탄소중립 지원(Atoms4NetZero), 암 치료 접근성 강화(Rays of Hope) 등 기술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속 지원

- 또한 인도네시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기반 시설·부지 타당성 조사, 전문인력 양성, 원자로 기술 선정 및 조달계획 등 추진. IAEA에 전문가 파견 및 '27년 통합원자력인프라검토(INIR) 절차 지원 요청

- IAEA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포함한 원자로에 대해 기술 자문 제공 및 사업 전반 지원 예정, 보건 분야 협력도 확대 계획. 특히 Rays of Hope를 통해 방사선종양학 역량 강화 목표

ㅇ **인니·중국, 전략적 투자 협력 확대 모색**[12](Aktualita, 9/22)

-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협력 확대 모색. 최근 상하이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중국 전략적 투자 포럼을 통해 양국 정부, 기업, 경제단체 및 투자 관계자 참석 및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방안 논의

---

11) https://www.brin.go.id/news/130386/iaea-dukung-penuh-indonesia-implementasikan-program-energi-nuklir-nasional
12) https://aktualita.co/en/international/indonesia-and-china-target-strategic-investment-in-green-energy-and

- 주상하이 인도네시아 총영사 Berlianto Situngkir는 양국 경제 관계가 수십 년간 확대되어 전략적 투자로 협력 범위를 넓힐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 '25년 양국 교역액은 1,546억불(Rp2,764tril), '26년 1~7월은 1,000억불(Rp1,789tril)을 기록, 중국의 '25년 대인니 투자액은 75억불(Rp134tril)로 주요 외국인 투자국에 포함

- 양국은 기존 경제협력을 유지하며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 확대 예정

ㅇ **인니·알제리, 석유·가스 분야 투자 협력 확대**[13](Detik, 9/23)

- 인도네시아와 알제리는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알제리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기업의 석유·가스 부문 투자 기회 확대 예정. 주알제리 인도네시아 대사 Yusron Bahauddin Ambary는 알제리 에너지·광물·신재생에너지부 장관 Mohamed Arkab 및 국가탄화수소자원개발청(ALNAFT) 청장 Abdelkader Cherfaoui와 면담 및 양국 간 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 알제리 측은 인도네시아를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국으로 평가, Pertamina의 현지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표명. 또한 양측은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탄화수소 공동위원회 개최 등 협력체계 마련

- ALNAFT는 현재 국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석유·가스 개발사업 입찰을 진행 중. 동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에너지기업의 알제리 석유·가스 분야 진출 확대 기대

3. 정부 정책동향

ㅇ **인정부,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부지·에너지 지원**[14](Bisnis, 9/22)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13) https://news.detik.com/berita/d-8674854/ri-aljazair-kerja-sama-buka-pintu-investasi-bagi-perusahaan-energi-indonesia
1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22/44/2006206/bahlil-obral-lahan-dan-energi-ri-untuk-tarik-investasi-data-center

강조.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 전력 비용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

- 정부는 데이터센터 투자기업을 적극 지원, 전력 공급을 주요 투자 유치 기반으로 마련할 방침.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용량을 투자자가 제시할 시 PLN이 수요에 맞춰 공급할 계획

- 현재 일부 국가는 전력 공급 여건이 제한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산업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 Bahlil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데이터센터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힘

ㅇ **인정부,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15](Antara, 9/22)

- 정부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추진. 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높은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

- 데이터센터 투자자가 필요한 전력 용량을 제시할 시 PLN이 전력을 공급할 계획. 전력망 안정성과 공급능력에 대한 투자자 우려에도 대응,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인근 국가 대비 경쟁력 있는 전력비용 제시 목표

- 정부는 이전 인도네시아·중국 협력 포럼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를 홍보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노력

ㅇ **인니, 에너지·식량 및 빈곤·일자리 문제 해결 주력**[16](Antara, 9/16)

- 프라보워 대통령은 식량, 에너지 안보, 빈곤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자립과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과제 해결에 정부 역량을 집중.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B50 바이오디젤과 같은 팜유

15) https://en.antaranews.com/amp/news/432311/indonesia-offers-abundant-islands-green-power-for-new-data-centers
16) https://en.antaranews.com/news/431629/indonesia-focuses-on-food-energy-poverty-jobs-president-prabowo

기반 연료 보급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아동 기아와 발육부진 및 빈곤 문제에도 대응

- 정부는 재정 효율화와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병행, 외화 창출과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 생산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 국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고용 확대 목표. 또한 천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업도 추진 예정

- 이와 더불어 마을협동조합 및 어촌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소득 증대 및 물류비 절감 추진, 농수산물 판로 확보 등 지역주민 지원.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학습, 학교 개보수,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 추진

ㅇ 인니,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석탄액화 사업 검토[17](Antara, 9/21)

-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석탄을 휘발유 등의 연료로 전환하는 석탄액화 사업 검토 중. 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열량탄 등 국내 에너지원을 활용한 대체 연료 생산 추진

- ESDM 광물·석탄 총국장 Tri Winarno는 석탄액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다고 설명.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화학기업 Sasol은 석탄액화 방식으로 일일 약 30만 배럴의 연료를 생산 중이라 언급

- 정부는 현재 석탄액화 사업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술 및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

ㅇ 프라보워 대통령, 인니 내 대규모 투자 유입 전망[18](Antara, 9/16)

- 프라보워 대통령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수주 내 대규모 투자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힘. '26년 상반기 투자 실현액은 572억불(Rp1,010.6tril)로 연간 목표 1,153억불(Rp2,041.3tril)의 49.5%를 달성, 약 145만 개 일자리 창출

17) https://en.antaranews.com/news/432119/indonesia-eyes-coal-liquefaction-to-boost-energy-security
18) https://en.antaranews.com/news/431633/large-scale-investment-to-enter-indonesia-in-coming-weeks-prabowo

- 이러한 투자 확대는 정부 사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활동 및 투자자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임을 강조. 물가상승률 2.92%, 낮은 국가채무비율, 3% 이하의 재정적자 등을 경제 안정의 주요 지표로 제시

- 또한 골드만삭스를 인용, 인도네시아가 '50년 세계 4~6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 정부는 경제 기초여건을 강화해 성장세를 유지, 추가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계획

ㅇ **프라보워 대통령, Danantara에 Jakarta LRT 개발 지원 촉구**[19](Antara, 9/16)

-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부펀드 Danantara에 자카르타 LRT 개발 지원 촉구.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은 LRT 노선의 Jakarta International Stadium(JIS) 연장 및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Danantara의 지원을 요청

- Kelapa Gading-Manggarai LRT는 총연장 12.2km로,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공기업 PT Jakarta Propertindo(Jakpro)가 지방예산을 통해 건설. 사업비는 약 6.8억불(Rp12.1tril) 규모, 열차 수송 인원은 약 270명이며 일일 최대 8만 명 수송 목표

- 자카르타 주정부는 Danantara의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망 확충과 광역 자카르타(Jabodetabek)의 교통 연결성 강화 기대

ㅇ **자카르타 주정부, Danantara에 LRT 개발 지원 요청**[20](Detik, 9/22)

- 자카르타 부지사 Rano Karno는 LRT Jakarta의 추가 개발을 위한 Danantara의 지원 요청, Manggarai~Dukuh Atas 구간 연장 및 Kelapa Gading~JIS 구간 개발 계획 제시. 특히 대중교통 간 연계 강화 목적으로 Manggarai~Dukuh Atas 구간 연장을 우선 추진 예정

- Rano 부지사는 LRT 이용객 증가보다 자카르타 시민의 대중교통

---

19) https://megapolitan.antaranews.com/berita/550289/presiden-danantara-wajib-bantu-pengembangan-lrt-jakarta
20) https://news.detik.com/berita/d-8673617/rano-ungkap-alasan-pemprov-dki-butuh-danantara-untuk-bangun-lrt

정착이 주요 목적임을 강조. LRT 노선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선택 폭 향상 및 도시 내 이동 편의 개선 도모

- 이에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 역시 JIS 구간 개발 및 LRT 노선의 Jakarta-Bandung 고속철도(Whoosh) 연결 방안 제시, Danantara의 지원 요청

ㅇ **Danantara, LRT 사업 재원 마련 검토**[21](Bisnis, 9/22)

- Danantara는 자카르타 및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을 위해 LRT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 고려, 도시철도(MRT), 간선급행버스(BRT), 철도망과 연계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검토. Danantara COO Dony Oskaria는 LRT 사업을 전체 교통망 통합 차원에서 검토 중

- 정부는 LRT 외에도 Jakarta-Cikampek, Jakarta-Sukabumi, Jakarta-Merak 노선 개발을 추진 중, 장기적으로 각 교통망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운영할 계획. 이를 통해 교통체계 안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

- 현재 Danantara는 자카르타 주정부와 추가 협의 예정, 다만 기업이나 운영기관별로 교통시설을 별도 개발·운영하는 방식은 지양할 방침. PT KAI와 PT Jakpro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여 교통수단별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계획

ㅇ **인교통부, PT KAI·발리주 정부에 트램 건설 조속 추진 요청**[22](Bisnis, 9/15)

- 교통부는 교통 혼잡 완화 및 주민과 관광객 편의 개선을 위해 발리주 정부에 트램 사업 추진 요청. 교통부 장관 Dudy Purwagandhi는 관광지와 I Gusti Ngurah Rai 국제공항 연결 구간의 교통 체증 등을 언급, 조속한 트램 건설 필요성 강조

- 현재 해안선을 기준으로 전기 트램을 건설하는 방식 고려 중, 유럽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비교적 저속 운행 예정. 또한 PT KAI는

---

2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22/98/2006287/danantara-soal-pendanaan-lrt-dony-akan-diintegrasikan-dengan-mrt-dan-busway
2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15/98/2004347/kemenhub-minta-kai-pemprov-bali-percepat-realisasi-trem-di-bali

국제공항~Canggu 지역 철도망 구축 사업을 제안,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이와 더불어 교통부는 수상택시 사업도 지속 논의 중이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여건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

ㅇ **인니, 파푸아 지역 인프라·연결성 강화 추진**[23](Antara, 9/17)

- 정부는 파푸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6개 주, 42개 지역의 지방정부와 협의회 개최 예정.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파푸아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기반 확대, 물류·서비스 유통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 언급

- 파푸아 지역 주지사들은 그동안 인프라 개발 및 지역 간 연결성 개선 등을 요청, 정부는 이를 반영 및 후속 논의할 계획. 특히 도로 확충을 통해 파푸아 주민 이동성 강화, 사업 기회 증가, 구매력 확대 등 유도, 해상·항공망 강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인·물적 이동 개선 도모

- 정부는 추후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개발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 지역별 수요 등 반영 예정

4. 녹색산업 동향

ㅇ **인니, 재생에너지 통해 전력 공급 추진**[24](Antara, 9/16)

- 정부는 '25~'29년까지 전국 10,068개 마을 및 지역의 전력 공급 추진, 이 중 기존 전력망 연결이 가능한 5,466개 지역과 전력 미공급 지역 4,602개를 구분하고 미공급 지역에는 총 508MW 규모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 전력 공급. 발전원은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정하며 지역별 에너지 자원 활용 예정

- 정부는 국가재정으로 동 사업에 약 34.8억불(Rp61.6tril)을 투입.

---

23) https://en.antaranews.com/news/431704/indonesia-pushes-infrastructure-connectivity-development-in-papua
24) https://en.antaranews.com/news/431616/indonesia-taps-renewable-energy-to-electrify-4602-remote-sites

총 36개 주, 약 7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해 기존 등유 및 땔감 등의 사용에 의존하던 가계 부담 완화 전망

- 또한 전력 미공급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생산성 향상 기대. 정부소통청(Bakom RI) 청장 Muhammad Qodari는 동 사업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년말 예상)

ㅇ (주요동향) 대우건설-SML, SHA 문안 대폭 수정 중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Offtaker), 대아이앤씨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KIND 자금지원 FS 진행 중
- **('26년 센터목표)** FS 결과 검토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ㅇ (주요동향) 현지실사 결과 반영 / 국토부 대상 FS 착수보고 준비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눙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폴법인), INA(예상)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대규모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GS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심의 부의여부 검토

ㅇ (주요동향) AMG 토지실사 완료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ㅇ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 계속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ㅇ **(주요동향) 공사 및 수요가 협상 마무리 단계**

- 10.31~11.1 양일간 준공식 일정 확정